

광양시 보건소, 국제보건인력 연수생 실무 현장 방문 왔다



광양시는 지난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제중원 보건개발원의 에비슨 펠로우십(AIF; Avison International

Fellowship) 연수 중인 방글라데시 국립 간호전문대학원 간호 교수가 광양시 보건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연수생에게 한국의 선진 일차보건의료 소개 “우수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과 경험 공유 시간 돼”

지난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현장 견학한 것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현장의 변화와 보건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을 배우고자 지역사회 보건의료 실무 현장인 학교, 산업장, 보건소 중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 우리 시 보건소에 방문하게 됐다.

방글라데시 국립간호전문대학원은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연세대학교의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으로 2012년에 착공해 2018년에 설립됐다.

에비슨 펠로우십(AIF) 초청 연수는 개발도

상국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와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해당 대학원의 인제 2명씩 선정해 글로벌 보건의료 인력 교육 훈련을 2개월 동안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실무 현장 방문은 연수생을 대상으로 보건소 시설 견학과 각 부서 업무 소개, 치매안심센터 인지 프로그램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

연수생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인 자국 사정상 출생 보건 관련 업무와 보건의료시스템 확립, 보건진료소 운영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동행한 강혜영 명예교수는 “2018년에

비해 보건소의 규모, 시설과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 태도 등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층 향상되고 시에서 얼마나 시민 건강관리에 주력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수생 Shamima는 “광양시 보건소 견학을 통해 한국의 선진 보건의료시스템과 모범사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자국으로 돌아 가면 반드시 체험했던 부분을 반영해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복덕 보건소장은 “전국 258개소 보건소 중 우리 시 보건소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로 광양시 보건소의 우수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보성군, 2023 공직자 한마음대회 개최

공직자 500여 명 참여...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조직 활성화

보성군은 지난 22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2023 공직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분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공직자 500여 명이 참여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단합을 도모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부서를 대표한 직원들이 경쟁을 펼친

13개 종목의 한마음 프로그램은 직원 간의 단결과 화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열띤 응원전도 펼쳐졌다.

또한, 줄다리기와 600m 계주 등은 읍면과 행정 지원 실과소가 한 팀이 돼 경기를 펼친 결과 노동면과 도시개발과, 의회사무과가 종합우승을 차지해 15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아울러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폐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 등을 가져온 직원들에게 교환 물품을 지급하는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행사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4,524개(104kg)의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김철우 군수는 “오랜만에 공직자 한마음대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모든 직원들이 화합하며 소통하는 뜻깊은 만남의 자리가 조직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매년 공직자 한마음대회를 열어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 조직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순천정원박람회장 불꽃쇼...오천그린광장 인파 가득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구름 관공이 모인 가운데 오천그린광장에서 펼쳐졌다.

24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이사장 노관규·순천시장은)는 전날 밤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동천 일대에서 열린 불꽃쇼 행사에 10만 여명의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행사 참가 인원을 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2배 이상의 관람객이 몰렸다. 박람회 기간 중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단독행사 중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관람객들은 행사 시작 서너 시간 전부터 오천그린광장에 돛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기 시작해 사전공연인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가 첫 곡을 시작할 무렵에는 19만 8000㎡의 넓은 광장을 빼곡하게 매웠다.

광장 주변 오천동 일대는 한때 핸드폰이

연결되지 않거나 음식점에 긴 줄 등 불꽃쇼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정원박람회 불꽃쇼는 그간 해상에서 열린 여타 불꽃쇼와 달리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져 특별함을 더했다.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화하는 조명·레이저·음악과 함께 가을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쇼를 선보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긴 장마와 폭염을 이겨내고 (정원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도시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보여준 순천시만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오늘 진 공연 즐기면서 남은 40여 일의 박람회 잘 치러 더 멋진 순천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불꽃쇼가 끝난 뒤 10만 관람객이 운집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안전사고가 전무했으며 쓰레기도 거의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사무실 개소

여수세계박람회장 정문 앞 보금자리 마련...7개 분과위원회·365명 구성 활동 탄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철, 이하 범시민준비위원회) 사

무실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정문 앞(공화남3길 19-1)에 개소했다.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이 중심이 돼 시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민간단체다. 지난 3월 출범해 7개 분과위원회와 365명으로 구성됐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려동 여행거리 광장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다.

안규철 범시민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무실 개소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민 실천운동, 대내·외 박람회 홍보, 관람객 유치 활동 등 범시민준비위의 활동을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축사를 통해 “사무실 개소와 더불어 범시민위원회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아 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견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김현근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